광주 출신 한복 디자이너 고영씨가 한복 제작을 맡았던 JTBC 드라마 '인수대비'(왼쪽)와 '궁중 잔혹사-꽃들의 전쟁'.

"전통 한복 짓는 바느질쟁이로 평생 살고파요"

광주 출신 한복 디자이너 고영씨

JTBC 특집 사극 '인수대비' '꽃들의 전쟁' 한복 제작

운현궁·왕인기념관 전시 의상도 … 전통 복식 박사수료

지난해 JTBC를 통해 방영된 50부작 사극 '궁중 잔혹사-꽃들의 전쟁'은 드라마 속 한복들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 소용조씨 역의 김현주와 인조 역 이덕화가 입은 화려한 한복은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한 해 먼저 방영된 JTBC 사극 '인수대비'에 출연했던 채시라와 김미숙의 한복 역시 인상적이었다.

드라마에 등장한 한복은 모두 광주 출신 한복 디자이너 고영(55)씨의 작품이다.

전남대 의류학과 출신인 고씨는 서울에서 한복 회사를 운영하며 드라마 의상을 비롯해 고증을 거친 각종 한복을 제작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울 선릉 성종대왕 제향 봉행 행사 참가자들이 입을 한복 200세트를 8개월에 걸쳐 제작했다. 그녀가 만든 의상은 40개 능 가운데 27개 능에서 행한 봉행 행사에서 사용됐다. 또 최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태극기를 복원하기도 했다.

전남대 의류학과 출신인 고 씨는 당시 많은 이들이 그랬듯 유명 기성복 회사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좀처럼 자리는 나지 않았고 거듭된 실패에 좌절하기도 했다. 한복을 한번 배워 보라는 어머니 권유로 부산에 가서 한복을 배웠던 그녀는 광주 한복집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한복을 지으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집에서 조그맣게 작업실을 차려두고 한복 짓는 일을 시작했고, 서울로 시집을 간 후에도 역시 집에서 알음으로 주문을 받아 한복을 만들었다.

그녀 인생에 변화가 온 때는 마흔살이 되던 해였다. 그해 성균관대 한국 복식 석사 과정에 들어갔고 '영상물 '춘향전'의 복식 비교 연구-조선 후기 출토 유물과의 비교'로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중이다.

고 씨가 방송 의상을 만들게 된 건 직물을 전공하던 대학원 동료의 권유를 받고 서였다. 첫 작품이 60부작 '인수대비'였다. 200벌 이상을 만들어야하는 대장정이었다. 디자인하고 바느질하고 2달간 직원들과 밤샘작업을 했다.

"처음 드라마 작업을 한 거라 정말 재미있게, 또 열심히 했어요. 원단 선택부터 디자인, 색깔 고르는 것까지 다 정성을 기울였죠. 무엇보다 고증에 힘을 썼어요. 한복도 전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등 다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쁘게만 입으려는 배우들을 설득하는 과정들도 있었죠."

'꽃들의 전쟁' 역시 50부작인 터라 제작 과정이 만만찮았다.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난다.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이방원 부인 역을 맡은 이일화가 집에서 입었던 생활한복을 만들었다.

2010년에는 서울 운현궁에 상설전시된 실물 모형의 의상을 제작했다. 대원군이 사랑채에 앉아 있는 모습 등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조선 시대는 옷으로 신분 제도를 확실히 표현하던 시절이라 고증에 신경을 써 제작했다.

또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기념관에 전시된 백제복식의 제작과 디스플레도 맡았다.

"한복 만드는 게 평생 직업이어도 좋겠다 생각할 만큼 매력적이죠. 한복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대학원에 가게됐고, 우리 옷의 스토리를 공부하다 보니 미술사, 특히 불교미술에 관심이 갔어요. 조상화를 공부하기도 하고, 출토 유물들이 쏟아질 때면 관심도 많아져요. 전통 한복 바느질 기법을 잊지 말자고 늘 생각해요. 깃 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고씨는 우리 고유의 한복 특성이 많이 사라지는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고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수의(壽衣)다. 아는 이의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 수의 한벌을 완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수의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이 무서웠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네요. 자료를 찾아보고 출토유물을 보면서 옛 어른들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정서가 한복에 남아있는데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 아쉬워요. 아주 중요한 통과의례인 아름다운 관례(성인식)가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한복을 문화운동으로 가져갔으면 해요."

고 씨는 한복하는 바느질 쟁이로 평생 살고 싶다고 했다. 기회가 닿으면 광주에서 조그마한 한복집을 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그룹 도드리 김재섭씨 '서암전통문화대상'

"창작 국악 인정받아 뿌듯"

"군대 제대하고 광주에 온 게 1984년이었습니다. 국악에 대한 열정과 고집으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꾸준히 해 온 게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된 것같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큰 상을 받아 기쁩니다."

7일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수여하는 제4회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된 피리 연주자 김재섭(53·도드리 이사장)씨는 무엇보다 국악창작 그룹 '도드리'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금속 공작 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화천그룹이 창업주 고(故) 서암 권승관 명예회장의 국악 사랑을 기려 설립한 서암문화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지금까지 이춘봉(전통 예능 장인), 박종석(한국화), 윤진철(판소리)씨가 수상했다. 재단은 2개월간 공모·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위원장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를 구성, 심사했다.

구례 출신인 김 씨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입학, 피리를 전공하면서 국악에 입문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구례향제 줄풍류'와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17년간 전남도립국악단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피리 연주자로 활동했다. 김 씨는 특히 지역에서 처음으로 1987년 민간 창작 국악단 '도드리'를 창단, 50여곡의 창작곡을 선보이고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 본 바탕은 궁중음악이고 정악이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정악과 민속악이 탄탄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장르를 능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눈을 돌린 게 창작 국악이었죠. 젊은 친구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점도 좋았구요. 처음에는 저것도 국악이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남이 하지 않는 음악을 해온 게 '도드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인듯해요. 앞으로도 저희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려합니다."

'도드리'는 중앙 지원금 쪽으로 눈을 돌려 4년간 멕시코 공연을 다녀왔고 '우리가락 우리마당'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도드리가 단국대 윤명원 교수에게 위촉해 첫 연주한 '섬진강'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올 12월에는 '비엔날레&김치축제-남도의 멋과 자랑'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중이다.

김 씨는 국악 가족이다. 대학에서 해금과 아쟁을 전공하는 두 딸과 역시 대학에서 대금을 공부하는 아들까지 모두 국악의 매력에 빠져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화천기공(주) 테크놀러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950-1521.

/김미은기자 mekim@

'어쿠스틱 with 조아브로' 콘서트

12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은 12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문화 공동체 조아브로'를 초청해 '어쿠스틱 With 조아브로'를 주제로 토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흥겨운 레크리에이션과 노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를 시작으로 모두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등 어쿠스틱 계열의 악기로 어쿠스틱 음악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관객들이 제시하는 단어를 주제로 즉석 노래를 부르는 '토크 테이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3부에서는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등으로 구성된 밴드가 영화 '클로저' 삽입곡인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블로워스 도터'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8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입장가능하다. 문의 062-570-70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인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시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7월 19일(토) 당일
모세의 기적 제부도/수원화성/수원행궁 기차여행
시 간 | 일 정
08:00경 | 목포역/나주역/광주송정역 출발
12:10경 | 수원역 도착 후 출발
13:00경 | "모세의기적" 제부도, 수원화성, 수원행궁관광
19:25경 | 수원역 출발
23:00경 | 광주송정역/나주역/목포역 도착
성인 85,000원~ 경로 82,000원~ 소아 70,000원~
8월 1일(금) 무박2일
정동진/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기차여행
시 간 | 일 정
20:00 |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4:40 |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 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관광
14:20 | 동해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3:00 | 광주역/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9,000원~ 경로 87,000원~ 소아 85,000원~
8월 8일(금) 무박2일
정동진/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기차여행
시 간 | 일 정
20:00 | 광주역 출발
04:40 |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 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관광
14:20 | 신기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2:00 | 광주역 도착
성인 89,000원~ 경로 87,000원~ 소아 85,000원~